

〈발표2〉

초등학교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특성 변화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 경험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예성(수원대)

김광혁(전주대)

1. 서론

최근 학교에서의 또래괴롭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또래괴롭힘의 전반적인 피해경험율은 평균적으로 40%를 웃돌고 있으며(이상균, 1999), 그 결과 또래괴롭힘 경험자들의 정서와 행동면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또래괴롭힘 현상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특성이나 괴롭힘 경험으로 인한 결과 등을 살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또래괴롭힘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와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가/피해집단, 무경험집단 및 이들의 상호적 관계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실제 많은 경우 또래괴롭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가/피해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는 집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wearer, Song, Cary, Eagle & Mickelson, 2001). 한편 또래괴롭힘 현상의 동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래괴롭힘 피해학생은 폭력행위로부터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분노와 공격성의 누적, 폭력 행동의 학습에 의해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상대로 하는 또다른 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1). 이는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또는 피해경험이 고정된 현상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동태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괴롭힘 피해집단의 경우 공격성 증대 등을 통해 괴롭힘 가해를 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종단적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유형에 따른 변화에 대한 분석은 깊이 있게 수행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4학년 1785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서울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또래괴롭힘 현상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및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경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에 따라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피해집단, 무경험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들 집단들은 어떠한 특성 차이를 지니는가?
2.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피해집단, 무경험집단은 우울불안, 학교애착, 공격성 수준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추이를 보이는가?
3.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에 따른 특성

또래괴롭힘 현상은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연결되어있는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래괴롭힘 가해집단과 피해집단,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인 가/피해 집단과 무경험집단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lee, 1995).

가해학생들은 자기통제감이 낮고, 동료들을 지배하고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해 능동적인 (proactive)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며 동료에 대한 공감정도가 낮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낮은 불안 수준을 나타낸다(Craig, 1998). 피해학생들의 경우, 무엇보다 우울 불안 정도가 가장 높고, 자존감이 낮은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내현화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집단으로서, 초기의 많은 연구들이 피해학생들이 겪게 되는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문제를 또래괴롭힘의 대표적인 폐해로서 다루어온 경향이 있다. 한편 또래괴롭힘 가/피해학생들은 또래괴롭힘 경험 집단들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지닌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충동적이고 높은 수준의 우울불안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과잉행동, 사회적 기술의 부족 같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나타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내현화 외현화 된 심리적 문제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Cunningham, 2007).

2)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우울감과 불안감의 증대, 자존감 하락, 소외감,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공격성 증가와 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우울과 불안감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통해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지지되고 있다(Swearer et al, 2001; Sweeting, Young, West & Der, 2006). 우울과 불안은 사회관계나 또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거나 유지시켜가는 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상황 자극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애매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공격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격성이 높은 아동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공격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Swearer et al.,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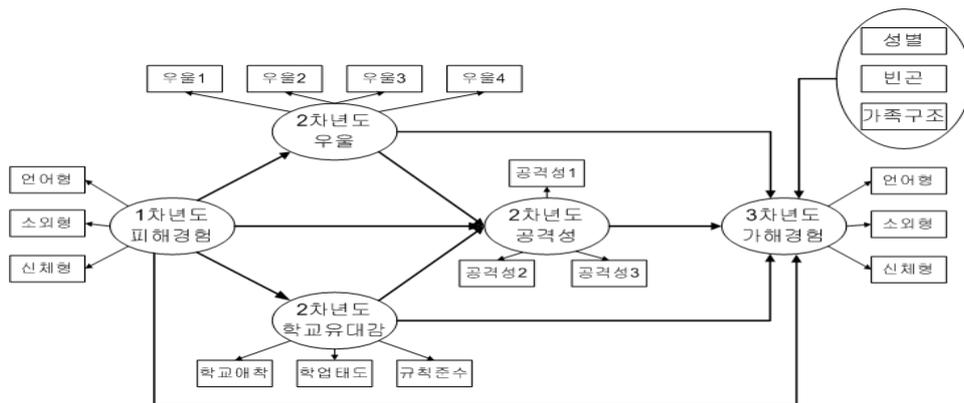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피해 학생들은 특히 폭력발생 장소인 학교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므로(이상균, 1999) 학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적응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지닌다(Rubin & Asendorpf, 1993; Egan & Perry, 1998). 학교생활에의 만족도 또는 학교 유대감은 위

험요인에 대한 완충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막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Cunningham(2007)은 사회발달모형(Social Development Model)을 통해 학교애착의 감소가 반사회성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또래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무기력하게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방어나 공격성 증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취함으로써 공격성이 증대되기도 한다.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 다룬 Salmivalli 등(1996)의 연구에서 절반정도의 피해자들은 이에 맞서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은 피해경험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또는 우울불안 증가나 학교유대감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결과에 의해 공격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또래괴롭힘 가해행위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우울불안 수준을 증대시키고 학교유대감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상황적 자극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학교유대감이라는 보호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공격성을 증대시키게 되며, 이러한 공격성 증대는 또래괴롭힘 가해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1, 2, 3차년도 데이터이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11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그 부모 전수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연 1회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종단적 조사(panel survey)로, 아동의 경우, 전문조사원이 교실에서 행하는 집단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기입 후 밀봉하여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년도인 2004년

에 11개 초등학교의 1785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조사되었던 사례 중 93.94%인 1,677사례가 조사되었으며, 3차년도에는 2차년도 조사사례의 92.18%인 1,546사례가 조사되었다.

3) 주요변수

(1) 종속변수

① 3차년도 가해경험 정도 : 언어형, 소외형, 신체형 가해경험에 대한 6문항. 4점 척도로 응답. cronbach α 값은 .649

(2) 독립변수

① 1차년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 언어형, 소외형, 신체형 피해경험에 대한 6문항. 4점 척도로 응답. cronbach α 값은 .707

(3) 매개변수

① 2차년도 우울불안 : CBCL문항 중 우울불안 척도 13문항 사용. 3점 척도로 응답.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32

② 2차년도 학교유대감 :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태도 등 학교유대감과 관련된 9문항. 4점 척도로 응답. cronbach α 값은 .759

③ 2차년도 공격성 : CBCL 공격성 19문항 사용. 3점척도. 신뢰도는 .814.

(4) 통제변수 : 성별, 빈곤여부, 가족구조

4. 연구결과

1)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 분류 및 유형별 특성 비교

전체 1785명 중 또래괴롭힘 가해학생은 142명(8.0%), 피해학생은 277명(15.5%), 가/피해학생은 1019명(58.2%), 무경험학생은 314명(17.6%)로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가/피해집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에 따른 빈도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	사례수	비율(%)
가해 경험집단	142명	(8.0)
피해 경험집단	277명	(15.5)
가해/피해 경험집단	1019명	(58.2)
무경험집단	314명	(17.6)
무응답	33명	(1.8)

나아가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에 따라 우울불안, 학교유대감, 공격성 정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가/피해집단은 우울불안, 학교유대감, 공격성 모두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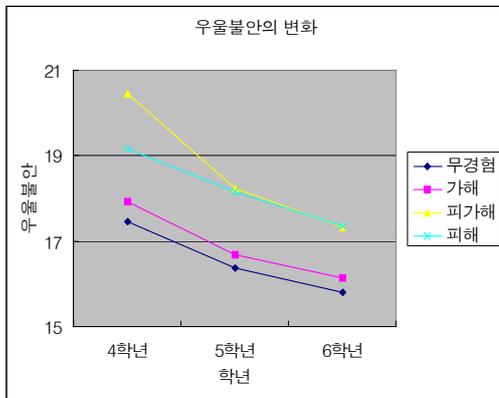
<표 2> 또래괴롭힘 경험 유형에 따른 특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p)	Duncan*
우울불안	가해집단	141	17.91	4.0016	40.455 (.000)	(1,4)(2)(3)
	피해집단	266	19.16	4.5397		
	가/피해집단	999	20.46	4.9916		
	무경험집단	308	17.45	3.6439		
학교유대감	가해집단	137	30.23	3.0098	30.025 (.000)	(1,2)(2,4)(3)
	피해집단	274	30.72	3.4038		
	가/피해집단	990	29.26	3.8113		
	무경험집단	306	31.27	3.4797		
공격성	가해집단	138	23.30	4.3621	95.860 (.000)	(1)(2)(3)(4)
	피해집단	270	22.33	3.4618		
	가/피해집단	983	25.38	4.9733		
	무경험집단	311	20.96	2.9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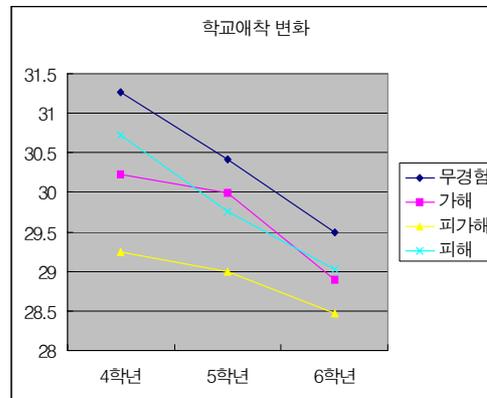
*1: 가해집단, 2: 피해집단, 3: 가/피해집단, 4: 무경험집단

2) 시간에 따른 유형별 특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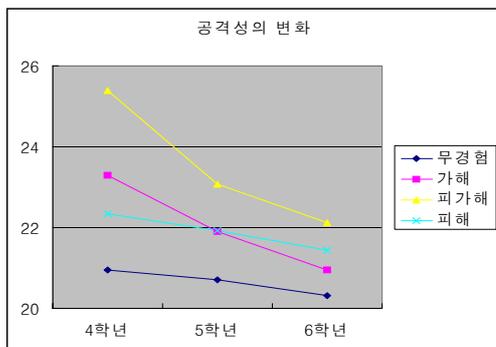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가/피해집단의 특성이 가장 부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변화에 있어서는 피해집단의 경우 가장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울불안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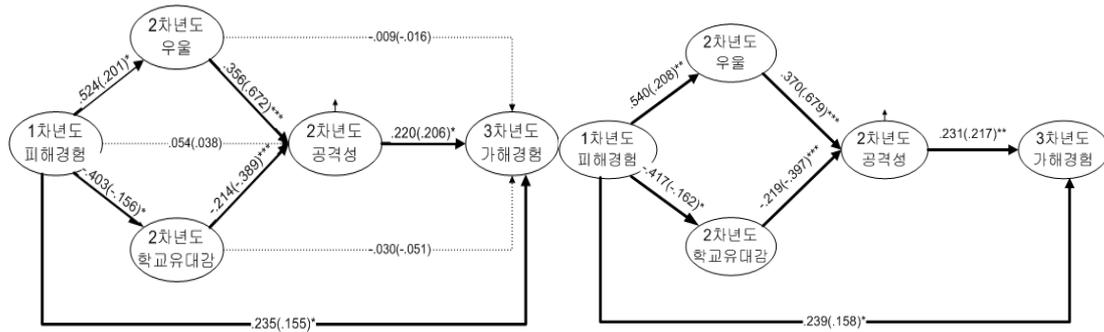
<그림 3> 학교유대감 변화 추이



<그림 4> 공격성 변화 추이

3)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검증

초기구조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4학년 시기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5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우울불안은 공격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다시 6학년 시기의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57.693(df=143)$, $p=.000$,
CFI=.904, TLI=.872, RMSEA=.054
<그림 4> 초기구조모형

$\chi^2=258.347(df=146)$, $p=.000$,
CFI=.906, TLI=.877, RMSEA=.053
<그림 5> 수정모형

보다 간명하면서도 현실적인 적합성이 높은 최적의 모형을 추정하고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로들을 제거한 수정모형으로서 <그림5>와 같은 최종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최종모형을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자체로 이후의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그 자체로 가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158로 나타났다. 두 번째 경로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우울불안 수준을 높이고(.208) 우울불안 수준은 공격성을 증대시킴으로써(.679) 이것이 다시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로로(.21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31(.208×.679×.217)이다. 세 번째 경로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유대감을 떨어뜨리고(-.162), 이것이 공격성을 증대시킴으로써(-.397), 궁극적으로 가해경험이 증가하게 되는 경로로(.217), 이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14(-.162×-.397×.217)이다.

5. 결론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또래괴롭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또래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화해가는 확대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 단순히 가해 피해의 양자구도로 파악하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 개입하기보다는 가/피해집단, 무경험집단 또한 함께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특히 무경험자 집단의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한편, 또래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래괴롭힘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또래압력을 작용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Jeffrey, Miller & Linn, 2001). 둘째, 또래

괴롭힘 현상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 경험자들의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괴롭힘 경험자, 특히 피해자와 가/피해자의 경우 우울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치료와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Swearer et al., 2001). 셋째, 학교 유대감은 또래괴롭힘 피해학생의 공격성 증대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괴롭힘 경험자들에게 친사회적인 동료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입을 통해 학교 및 사회 환경에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또래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을 학교 내에 상시 제공하는 한편, 또래괴롭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래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학교분위기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1.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
-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123-130.
- Cunningham, N. J. (2007). Level of bonding to school and percep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by bullies, victims, and bully victim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4), 457-478.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Jeffrey, L. R., Miller, D., & Linn, M. (2001). Middle school bullying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passive observers to the victimization of others. *Journal of Emotional Abuse*, 2(2), 143-156.
- Rubin, K. H. & Asendorpf, J. B. 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Salmivalli, C., Karhunen, J., & Lagerspetz, K. M. J. (1996). How do the victims respond to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2, 99-109.
- Slee, P. T.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57-62.
- Swearer, S. M., Song, S. Y., Cary, P. T., Eagle, J. W., & Mickelson, W. T. (2001). Psychosocial correlates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bully/victim status. *Journal of Emotional Abuse*, 2(2), 95-121.
- Sweeting, H., Young, R., West, P., & Der, G. (2006).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in early-mid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77-594.